

검토하고 선박 건조시의 잠재적 유해물질 리스트(인벤토리)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운항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대규모 수선·개조시에 금지물질의 사용량의 증가를 금지하고, 선박의 요목, 인벤토리 갱신을 의무화하며 기존선은 경과조치를 둔 후, 필요하고 적절한 범위에서 인벤토리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박해체 준비시 선주는 승인·허가 또는 적절히 규제된 해체시설만을 사용하고 해당시설의 정

보는 공개하는 한편, 해체시설을 취급할 수 없는 물질의 사전제거는 강제화하지 않고, 개별의 해체계획으로 규정하며 해체시설에 인벤토리 최신판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해체시설은 해체계획(열작업을 위한 가스프리 증명의 발급 등을 강제화)의 작성과 해체국에 의한 해체시설의 승인 등은 국제적인 기준(ISO 등)에 근거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 주요항만 컨테이너 처리물동량 증가세 지속 올 상반기중 상해항 처리물량 854만TEU 기록 광주항은 전년동기대비 무려 43.3% 증가해

올들어서도 중국 주요항만의 컨테이너물동량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중국 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올 상반기중 중국 전항만의 컨테이너 취급량은 3,429만TEU로 전년동기대비 24% 증가했다.

지난 6월중 처리물량은 609만TEU로 이중 주요 연해항이 20% 증가한 571만TEU를 기록했으며, 주요 하천항은 전년동월대비 29% 증가한 37만TEU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중 중국 주요항만의 컨테이너화물 처리량 증감현황을 보면, △상해항이 854만TEU로 전년동기대비 26.3% 증가했으며, 이어 △심천항은 739만TEU로 22.5% △청도항 303만TEU로 24.4% △영파항 231만TEU로 28.2% △천진항 226만TEU로 24.3% △광주항 204만TEU로 43.3% △하문항 160만TEU로 15.1% △대련항 122만TEU로 24.0% 등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상해국제항무집단(SIPG)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 1-7월중 상해항에서 처리된 컨테이너화물은 1,075만TEU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7% 증가, 벌써 1,000만TEU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 상반기중 홍콩의 컨테이너 취급량은 1,075만TEU로 전년동기대비 1% 증가한데 그쳤다.

